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since
1929.5.1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713-5254(사무실) 717-2605(담임목사실)
Homepage : http//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탄주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비 전 …… 다함께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44. 찬송하는 소리 있어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로우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성탄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에게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온 시간보다는 그렇지 못했던 시간들이 많았음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굿간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도 모시고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하오나 저희는 늘 그 자리를 욕망에게 내어 주었고 세상의 온갖 그릇된 우상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하여 이 시간 주님께 다시 한 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옵시고 성탄의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고요히 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이 푸른 언덕에 서있는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빛 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사54:7-8 …… 인도자

♠ 교 독 문 …… 56. 강림절 …… 다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함께

대표기도 …… Ⅰ. 한성건 선생 Ⅱ. 윤정덕 장로

사도신경 …… 다함께

응 답 송 …… 성가대

찬 송 …… 1. 120. 오 베들레헴 작은 골 …… 다함께

성경봉독 …… Ⅰ. 눅 1:39-45 Ⅱ. 요 3:1-8 …… 다함께 문영혜 집사

찬 양 …… 성가대

말 씀 …… **Ⅰ. 멋진 조연** **Ⅱ. 거듭남의 성탄** …… 김기석 목사 김재흥 목사

거둠기도 …… 다함께

헌신의 찬송 …… 114. 그 어린 주 예수 …… 다함께

헌금봉헌 …… 다함께

♠ 봉 헌 송 ……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결단의 찬송 …… 59. 성전을 떠나 가기 전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바람 같은 자유를 주기 위해 오신 주님을 정성껏 모시십시오. 주님이 주신 성탄의 기쁨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그 기쁨으로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다 함 께 :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이 작고 허름하며 추한 마음에 찾아오심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셨듯이 이제는 우리들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옵소서. 아멘.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성탄 맞이 행사	성탄절 칸타타 및 선물교환
교회학교 (기도: 안정숙 권사)	성가대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조관행 집사 조병무 장로	다함께 최철수 집사

12월							
	영접위원	윤정덕	박창운	박규석	조병주	백혜숙	이증자
	헌금위원	윤석철	김중수	한상익	구성실	김필순	이순정

▣ /믿/음/으/로/읽/는/글/

'잃음'에 대하여

논어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가여언이불여지언(可與言而不與之言)이면 실인(失人)이요, 불가여언이여지언(不可與言而與之言)이면 실언(失言)이니" 그 뜻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 말할 만한 사람과 말하지 않음은 사람을 잃음이요, 더불어 말할 만하지 않은 사람과 말함은 말을 잃음이다."

옛 가르침이 그윽하면서도 구체적이다. 구체적이면서도 그윽하다. 고전이 갖는 멋과 맛은 그런 것이지 싶다. 세상이 변해도 변함없는, 세상이 변할수록 변함없는 가르침, 고전을 읽는 맛과 멋은 그래서 남다른 것이리라.

말할 사람과 말하지 않음은 사람을 잃음이요, 말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 말을 함은 말을 잃음이라, 쉽게 읽히지만 생각까지 쉬운 것은 아니다. 우리 삶에서 사람과 말을 빼면 무엇이 남게 될까.

말해야 할 사람과 말을 하지 않아 사람을 잃을 때가 있다.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서도 때로는 주저함으로, 어떤 땐 교만이나 자격지심으로 말을 하지 않아 사람을 잃을 때가 적지 않다. 좋은 만남을 놓쳐버리고 두고두고 후회할 때가 있다. 참된 삶이란 참된 만남,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만큼 좋은 배움이 어디 있을까 싶은 생각을 하면 아쉬움은 더욱 커진다.

그런가 하면 말을 잃을 때도 있다. 말할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과 말을 하는 것은 결국 말을 잃는 것이다. 많은 말을 하면서도 허전할 때가 있고, 많은 말을 했지만 오히려 오해가 쌓이는 경우가 있다. 진실 어린 말까지 소용없게 여겨질 때가 있으니 결국은 말을 잃을 때가 적지 않은 셈이다.

사람과 말, 살아가며 우리들의 삶 속에 빠뜨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다. 말 할 만한 사람과의 만남을 놓치지 않으며, 말 할만하지 않은 사람이거들랑 아예 말을 꺼내지 않는 것.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삶의 용기와 지혜일 것이다. 나부터 말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겠지만. 말은 많고 참다운 사람은 드물어 좋은 만남이 사라지고 있는 세상,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람과 말을 너무도 쉽게 잃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생각 없이 잃고 있는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3미터의 유혹

왕집사님네가 새로 개업한 식품점 '서울마트'는 프랑크푸르트 시내 한 복판에 있다. 메세와 중앙역 사이에 있는 괴테 김나지움 뒤편에 자리잡고 있으니 시내 중심이라면 중심인 셈이다.

괴테 김나지움은 독일학교지만 주말이면 한국학교가 된다. 자체 건물을 갖고있지 못한 한국학교는 매주 토요일마다 괴테 김나지움을 빌려서 학교로 쓰고 있다. 같은 땅에 살면서도 자체 건물을 가지고 평일에도 일본어로 수업을 하는 일본학교와는 대조적이다. 여러 가지 되돌아볼 점이 있다고 여겨진다.

한국학교 뒤편이다 보니 한국학교가 열리는 토요일에는 가게가 붐빈다.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부모들이 바로 뒤편에 있는 한국식품점에 들러 장을 보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한국학교가 3부 수업으로 바뀌게 되어 하루에도 서너 번씩 학교를 오가야 하는 학부모들은 아예 자녀들을 데려다 준 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왕집사님네 가게 앞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컵라면이나 김밥으로 점심까지 들기도 한다. 그렇게 시간을 보낸 뒤 자녀들이 끝난 뒤 함께 돌아가는 것이다. 왕집사님네는 비디오 대여점을 겸하고 있어 이래저래 토요일이면 식품점을 찾는 사람들로 가게가 북적인다.

가게에 딸린 주차장은 자동차 서너 대 세울 수 있는 공간 밖에 없어 대개는 길가 양편에 세우곤 한다. 그런데 가게 주차장 위치가 묘하다. 일을 보고 돌아갈 때마다 잠시 망설이게 된다.

독일의 길은 일방통행 길이 많다. 특히 주택가가 그렇다. 가게 주차장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갈 때면 공연히 한 바퀴를 빙 돌아 다시 가게 앞을 지나서 가야 한다. '공연히'라 한 것은 바로 3미터 정도의 거리 때문이다. 3미터 정도만 일방통행 길을 거꾸로 나오면 굳이 한 바퀴를 돌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아주 길면 엄두를 내지 못하겠지만 기껏 3미터 정도, 차가 없을 때 잠깐 뒤로 나오면 편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곤 한다.

지난번 집사님네를 다녀오며 바로 그 3미터 거리를 3미터의 유혹이라 생각하기로 했다. 이제부턴 망설이지 않고 빙 돌아서 가기로 했다. 3미터라 사소해 보이지만 유혹은 늘 그렇게 사소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법, 작은 일에서부터 자신을 경계하기로 했다.

(한희철)

▣ 마/음/으/로/읽/는/글

꽃의 연가

너무 쉽게 나를 곱다고 말하지 말아 주세요
한번의 피어남을 위해 이토록
안팎으로 몸살 앓는 나를
너무 쉽게 곱다고 말하지 말아요

남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혼자만의 아픔을
조용히 눈을 감고 노랠 불러도
아직도 남은 나의 눈물은
어떤 향기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피어있는 동안에 모든 움직임들이
주님을 위한 기도인 것처럼
시든 후에도 전하는 나의 말을 들어주세요
사랑의 괴로움 견디며
죽어서도 향기론 노래 피워 올리고 싶은
주님의 꽃이에요.

이해인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김근종 **지휘** : 윤주원 **반주**: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배기만 김춘려 김종훈 안경숙 박창운 허정윤 김훈동 유경순 김용진 박효선 이봉옥 김혜권 김미순 이유선 방극숙 안정숙 박정숙

월정헌금:
정원석 김현영 최성애 하현철 김명순 조항범 오현정 최주환 문복순 이증자 김성한 조영순 이용희 이영란 오복순 송의섭 전영자 이경남 허광식 정진경

감사헌금: 한인철 정복순 김홍기 장성호 무명

생일감사헌금: 김기석 유경순

구도헌금: 문금석 김금룡 자손 김철수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박 옥 식	차 혜 심	연합속회	쉼
베들레헴	윤 정 덕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가 나 안	유 영 남	문 영 혜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홍 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한 선 희		
빌 립 보	최 종 원	이 형 숙		
가버나움	구 성 실	안 홍 숙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갈라디아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두 란 노	안 종 일	정 현 주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2003년 -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골4:17)

1. **성탄맞이 행사 :** 오늘 오후집회는 교회학교 주관으로 성탄맞이 행사가 있습니다.
2. **성탄절 칸타타** : 24일(수) 오후 7시 30분에는 성가대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연주합니다. 오실 때 작은 선물(1만원 한도)을 마련하여 간단한 성탄축하 메시지와 함께 포장해 오십시오. 선물 교환 순서를 갖겠습니다.
3. **성탄절 예배** : 25일 (목) 오전 11시에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유아세례, 세례, 입교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성탄헌금을 준비하십시오.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4. **신임원교육:** 당회에서 신임원으로 선출되신 분들은 지방에서 실시하는 신임원교육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9,30일 상동교회 (저녁 6시 30분)
   신천권사: 차혜심 박효선 허정윤 장혜숙 박홍재 백혜숙
   신천원로집사: 이희균
   신천집사: 박준희 김영한 임 영 유혜경 고광송 이춘희 황경순
   조항미 박경선 박혜경 윤수진
5. **하늘양식 :** 가정 예배서 <<하늘양식>>을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오셔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6. **2004년 달력:**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한 가정이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7. **원로모임:** 아름다운 원로모임이 26일(금) 송년회로 모입니다.
8. **미술교실 전시회:** 27일(토) 오후 2시에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9. **신앙실천** : 성탄절기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맘 따뜻한 선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화 : 김주희 (생일)
*달력 : 김중수 이순정 권사님의 헌금으로 제작했습니다.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초등부	10:50	교육관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학생회실	오후집회	14:00	교육관
2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1 청년회	16:00(±)	교사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